


한국 고대 동물희생의례의 특징 - 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

고은별 ¹

¹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Animal Sacrifice Rituals in Ancient Korea - with Focus on Silla Tomb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Eunbyul Ko¹

¹*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 in which rituals involving animal sacrifice were undertaken at Silla elite tombs by approaching and analyzing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the high-mounded tomb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s the remnants of ritual practices. As with funerary practices, each step of an animal sacrifice ritual is also imbued with different meanings. Based on this premise, it is assumed that the different contexts of animal remains represent different forms of ritual practices; accordingly, ‘the deposition of animals as grave goods’ and ‘animal sacrifice rituals’ were distinguished. ‘Animal deposition as grave goods’ took place within the tomb (in either the main burial chamber or the auxiliary grave goods chamber), and involved the burial of birds, fish, shellfish, mammals, etc. that had been placed in ceramic and other containers. Such remains may represent the use of animals as foodstuffs (both prepared or as ingredients), but this may not necessarily have been the case. ‘Animal sacrifice ritual’, on the other hand, took place after the main burial chamber and the auxiliary grave goods chamber were sealed off, and its remains can be found outside the chambers, above the stones used to seal off the chambers, in and around the mound, and around the tomb. The remains of ‘animal sacrifice ritual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at which had been placed with containers, which are likely to represent ritual food offerings made during the process of tomb construction or the following funerary ceremony. These remain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found within the main burial chamber or the auxiliary grave goods chamber, are likely to have been in the form of edible dishes. Animal remains that are likely to represent ritual sacrifice, on the other hand, have been discovered above the stones used to seal off the tomb’s chambers, about the tomb’s protective stones, and in detached deposition pits; the animals retained the form of their living state and the absence of containers is notable. The well-known horse burials or horse deposition pits are an example of this.

Keywords : Animal sacrifice rituals, Three Kingdoms Period, Silla, Tombs, Archaeology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April 28, 2020; **Revised:** June 16, 2020;

Accepted: June 18, 2020

Correspondence to: 고은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E-mail: byul9880@hanmail.net

서론

동물희생의례(animal sacrifice ritual)는 동물 도살을 전제로 한 일련의 의례 행위를 일컬으며 어떤 실질적 또는 상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속에 의례화된 도살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1].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선사시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관찰되며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 고고학 유적에서는 기후, 토양 등 환경적인 이유로 유기물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貝塚이나 저습지 유적 외에는 동물유존체가 출토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관련 연구의 성장이 더디었다. 그로 인해 한국 고대사회의 동물희생의례의 면면은 단편적인 역사기록에 기대어 연구될 수 밖에 없었다.

최근까지 이십여 년에 걸쳐 한국에 동물고고학이 도입·정착해 온 과정 속에서 고고학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에 대한 분석 보고가 급증했고, 그 결과 과거 한반도에서의 동물 이용 양상에 관한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동물희생의례 연구가 주목받게 된 것은 근년으로, 경산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20,000여 점의 동물유존체가 연차적으로 분석 보고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2,3]. 경산 임당 유적은 4~6세기 신라 지방 지배층의 무덤 수백 기가 밀집한 분묘유적으로, 1980년대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당시 많은 양의 동물유존체가 수습되었지만 분석되지 못한 채 삼십여 년 가까이 대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자료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분석 보고되기 시작해 2017, 2018년에 종합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장송 의례 과정에서 행해진 다양한 동물희생의례의 양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학계에서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본 논문은 삼국시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에서 행해진 동물희생의례의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그 운용원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물 잔존 가능성이 낮은 한국 고고학 유적 가운데에서 유독 신라와 가야의 무덤 주변에서는 큰 동물뼈가 종종 눈에 띄어 지역민들이 이를 말무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경주의 신라 고분 중 하나인 노서동 133호분을 ‘馬塚’이라고 보고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4]. 이런 이유로 전문적인 동물고고학적 연구 이전에 이미 학계에는 신라와 가야의 분묘유적에서는 말을 제물로 한 의례 행위가 있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경산 임당 유적에서의 동물유존체 분석 보고에 따르면[2,3] 신라와 가야의 장송 의례에는 말을 제물로 한 희생의례가 포함되긴 하나 그보다는 조류를 중심으로 한 동물부장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5].

한편 백제의 분묘유적에서는 동물유존체가 확인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신라·가야의 경우와 비교하면 극히 드물고 소량이다. 이는 상이한 무덤 구조로 인한 보존 환경의 차이는 물론 희생된 동물의 종류나 동물을 도살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행위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가 내세에도 이어진다고 여기는 계세적 내세관으로 인해 厚葬이 성행했던 신라·가야와 달리, 백제에서는 불교적 내세관을 내세워 薄葬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어[6] 보존 환경이나 과거 인간 행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신라·가야의 장송의례 과정에서 동물희생의례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고대국가 신라에서는 4~6세기 동안 경주와 지방 곳곳에서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 이른바 高塚의 축조가 성행하였다[7]. 내부에는 死者의 공간인 주곽과 많은 양의 부장품을 넣기 위한 공간인 부곽이 마련되었다. 주곽과 부곽은 거대한 판상의 돌이나 목판으로 마감되었고 그 위에 돌이나 흙을 쌓아 올려 거대한 기념물이 완성되었다. 이는 상당한 양의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일종의 토목공사로, 그 배경에는 무덤 축조집단의 정치·사회·경제적 파워 과시에 대한 욕망이 숨어있다고 해석된다. 그 과정에서 고층의 안팎에 적게는 십여 마리부터 많게는 몇백 마리에 이르는 동물이 희생되었는데 이는 고층 축조 집단이 여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8]. 이러한 이유로 동물희생의례는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이나 상징체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연구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고층 축조 집단의 경제적 기반과 그 사회적 동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태학적인 동정을 통해 어떠한 동물 종이 출토되었는지 리스트업하는 것을 넘어 각 동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출토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방법이 된다.

재료 및 방법

본고의 목적인 신라 지배층의 무덤에서 행해진 동물희생의례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임당 유적이다. 경산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는 20,000여 점으로 이는 한국에서 단일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 가운데 최다량이다. 게다가 이 유적은 현재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토량은 더 증가할 것이어서 아마도 한반도에서 동물유존체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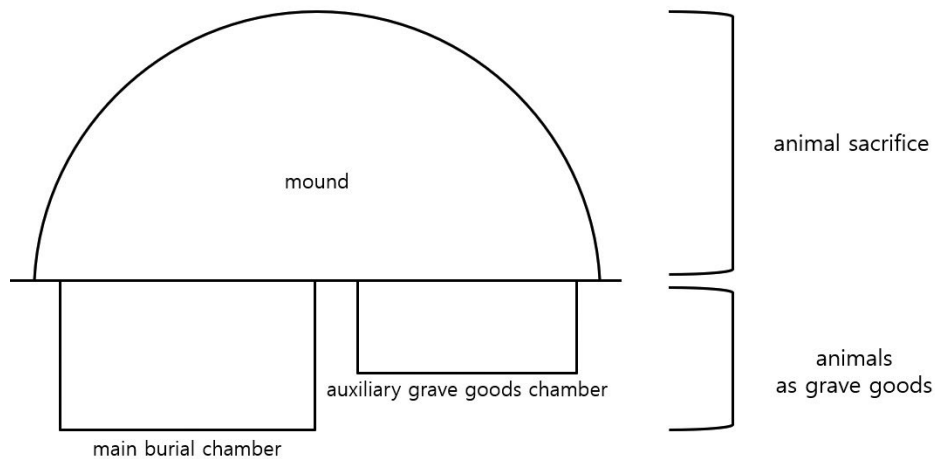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animal sacrifice ritual by location.

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당 유적의 분묘에서는 조류가 7,024점(최소개체수 607마리), 어류가 5,837점(최소개체수 373마리), 패류가 5,710점(최소 5,393개체), 포유류가 1,159점(최소개체수 69마리)이 출토되었다[2,3]. 이처럼 경산 입당 유적에서 동물유존체가 다량 출토된 것은 이 지역 특유의 지역색을 가진 무덤이 가진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기물이 잘 보존된 결과이다. 또한 경산 입당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충실히 수습되고 출토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덕분에 삼십여 년이 흐른 뒤에도 그 양상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다. 각각의 동물유존체는 형태학적 관찰, 계측 등을 통해 종과 부위를 판별하고 출토 맥락에 따라 종별, 부위별 출토 양상이 검토되었다.

경산 입당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 가운데 상당수는 분묘 내부, 즉 주곽과 부곽의 토기 내부에 부장된 것이고 이 외에는 주곽(의 지하 구조물)을 덮는 개석 위나 봉분 안, 또는 무덤 영역 경계의 일종인 호석의 주변과 같은 분묘 외부에서 확인되었다. 동물유존체가 무덤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은 장송 의례 과정에서 동물희생의례가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장 의례는 여러 단계에 걸쳐 각각 상이한 의미가 부여된 의례 행위의 연속으로, 동물희생의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는 그 종류는 물론이거니와 출토된 위치와 상태, 즉 맥락이 그 고고학적 의미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 저승과 이승의 경계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주곽(또는 부곽)의 마감재를 기준으로 분묘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각각의 동물유존체 출토 양

상을 검토하였다.

분묘유적에서의 동물희생의례는 출토위치라는 공간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묘 내부는 동물부장, 분묘 외부는 동물희생으로 구분된다(Fig. 1) [8]. 동물부장은 분묘 내부, 즉 주곽과 부곽 안에 일종의 부장품으로 매납된 경우로 이때는 동물이 거의 예외없이 토기 등의 용기에 담겨 부장된다. 동물유존체가 주곽이나 부곽의 바닥에 놓인 채 출토되는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출토 정황에 따르면 대부분 유기물로 만들어진 용기류에 담기거나 직물류로 감싸는 등의 방식으로 묻혔으나 이것이 부식되어 남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희생은 분묘 외부, 즉 死者와 일체의 부장품을 넣은 공간을 개석 등의 마감재로 덮어 산 자들의 세계와 구분 지은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의례행위로, 개석 위나 봉토 내부 또는 분묘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이 해당된다. 이는 다시 그 양상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먼저 분묘 축조 과정이나 이후 제사 과정에서 행해진 의례에서 이용된 祭需가 용기류에 담겨 매납되는 경우다. 이는 개석 위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봉분 상부에 묻히는 경우도 있으며 무덤 주변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동물희생의 두 번째 종류는 현장에서 제물로 희생된 동물이 매납되는 경우로,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앗는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동물들은 분묘 축조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제사 과정에서 행해진 의례에서 희생되어 개석 위, 봉분 내부, 또는 호석 주변에 묻히거나 아예 별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내부에 매납된다. 이때 굴광이나 정지 작업 외에 별도의 시설 없이 매납되기 때문에 용기류에 담긴 사례는 극히 드물다. 많이 알려진 말무덤이나 마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인 것으로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양자가 이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때에 따라 희생된 동물이 부장품으로 묻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덤 내부에 부장된 경우와 제수가 매납된 경우는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해 동물유존체 출토 양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유존체의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은 이들이 각각 장송 의례의 각 단계마다 시차를 두고 묻혔고 이는 과거 인간들이 이에 각기 상이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 과

1. 경산 임당 유적 동물부장의 성격과 특징

경산 임당 유적에서의 사례를 보면 분묘 내부에 매납되는 동물부장의 경우 이때 선택되는 동물은 조류, 어류, 패류가 주를 이루고 포유류는 드물다. 부장품을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위해 준비된 물품으로 이해하는 연장선상에서 대부분 토기 등 용기류에 담겨진 채 출토되는 동물유존체는 ‘음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9]. 그런데 과연 동물부장이 과거 인간이 음식을 부장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고고학 연구자들은 분묘유적에서 조류가 출토될 때 한 개체가 온전히 묻혔다면 희생 제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머리, 내장, 발이 제거되었다면 음식의 성격으로 부장된 것으로 이해한다[10]. 경산 임당 유적에서 조류의 출토 양상을 보면 부적골 이하 부위, 즉 ‘발’에 해당하는 부위가 출토되지 않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머리와 장골 이하 부위, 즉 날개 끝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제거된 채 부장된다. 이러한 원칙은 임당 유적 내 모든 분묘에서 예외없이 강하게 고수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조류를 식용할 때의 해체 방식이 의례적 도살과 해체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로 추정된다. 즉 이러한 부위별 출토 양상을 보면 동물부장은 음식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산 임당 유적에서 하나의 토기에서 가장 많은 조류가 부장된 사례인 조영 EIII-2호 부곽 41번 단경호에서는 평 70마리가 확인되었는데, 이때 가장 극단적인 선별적 부장 방식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날개의 윗부분인 상완골, 몸통과 날개를 잇는 부위인 창사골, 오구골, 견갑골, 몸통의 아랫부분인 흉골, 발을 제외한 다리 부위인 대퇴골과 경족근골, 비골만이 출토되었다(Fig. 2[5]). 특히 다리와 연결된 몸통 부위인 복합선골과 관골도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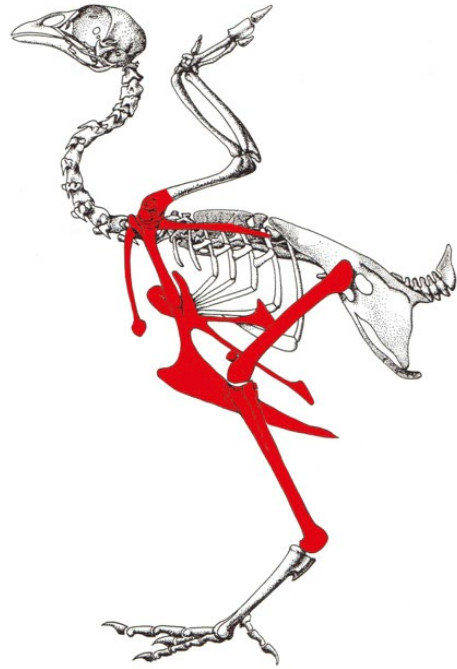


Fig. 2. Recovered body parts of pheasant.

는 것은 많은 개체를 용기에 담기 위해 해체 과정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특정 부위만을 선별해서 부장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동물부장이 음식물을 부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기에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 우선 한 토기 안에 복수의 조류, 어류, 패류가 함께 담긴 경우가 많고, 패류의 경우 사람이 식용할 수 없는 너무 작은 크기의 개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식용하지 않는 종류의 패류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 토기에 담긴 내용물이 개념상 ‘음식’이었을지는 몰라도 산 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식재료를 담아 저장한 형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 경산 임당 유적 동물희생의 성격과 특징

분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희생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의례 과정에서 제수가 용기류에 담겨 매납되는 경우와 개석 위나 호석 주변 또는 독립매납유구에 동물이 희생되어 놓이는 경우이다. 먼저 제수가 용기류에 담겨 매납되는 경우는 주로 조류나 패류가 용기류에 담겨서 매납되고 때로는 돼지 등 사육종 포유류 동물이 함께 확인되기도 한다. 경산 임당 유적의 임당 2호분 봉분 조사 과정에서는 일군의 토기와 함께 최소 7마리분의 평 뼈와 소량의 돼지 뼈가 출토되었는데(Fig. 3[11]). 이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



Fig. 3. Imdang-2S main burial chamber and auxiliary grave goods chamber.



Fig. 4. Dog bones found on the stone used to seal off main burial chamber of Imdang-2N.

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는 출토되는 동물의 종류나 확인되는 부위 등에 있어서 동물부장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개석 위나 호석 주변, 또는 독립매장유구에서는 주로 포유류 동물이 희생 동물로 확인되는데 용기류에 담기

는 경우가 드물고 큰 해체없이 동물의 생전의 모습이 그대로 매납된다. 이는 살아있을 때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당 2호분의 복호 주곽 개석 위에서는 개 4마리와 토끼 2마리가 놓인 채 발견되었다. 발굴조사 당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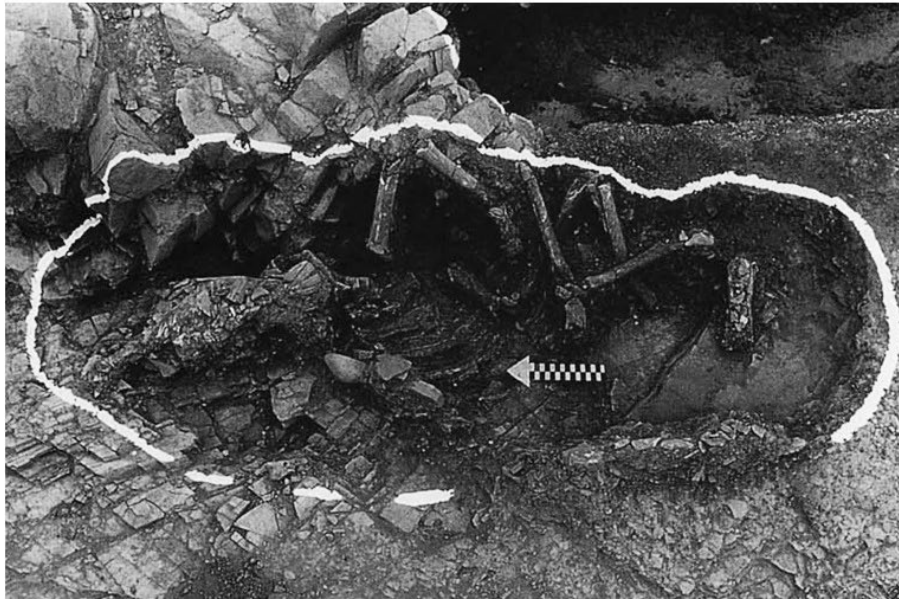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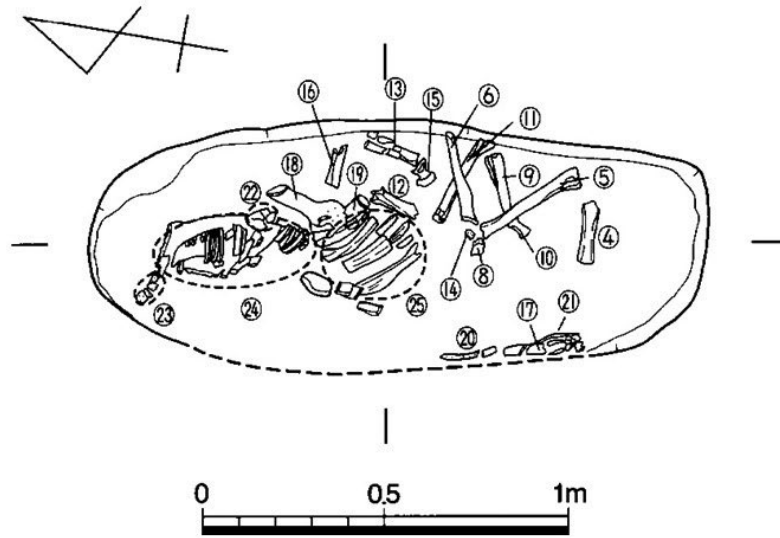


Fig. 5. Horse deposition at Imdang.

는 개 3마리가 개석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고 보고되었지만(Fig. 4 [11]), 분석 결과 개 4마리와 토끼 2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물희생 가운데 분묘 외부에 희생 제물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 매납되는 또다른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독립매장 유구에 희생 동물이 묻히는 것이다. 이때 희생 동물은 거의 대부분 말이며 개석 위에 동물이 놓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해체없이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납된다. 이러한 희생 동물의 독립매장유구는 경산 임당 유적의 G지구 61호묘(Fig. 5 [12])와 임당 1호분에서 확인되었다.

장송 의례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행해진 동물부장, 동물희생에는 각각에 부여된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선택되는 동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만약 동물부장과 동물희생에 동일한 동물종이 선택되었다고 해도 희생한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동물부장의 경우나 제수가 용기류에 담겨 매납되는 방식의 동물희생은 식용되는 동물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제물로 희생되는 동물은 상징적인 가치가 부여되거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된 말이나 개와 같은 사육종 포유류 동물이 선택되었다.

또 동물부장의 경우와 동물희생 가운데 용기류에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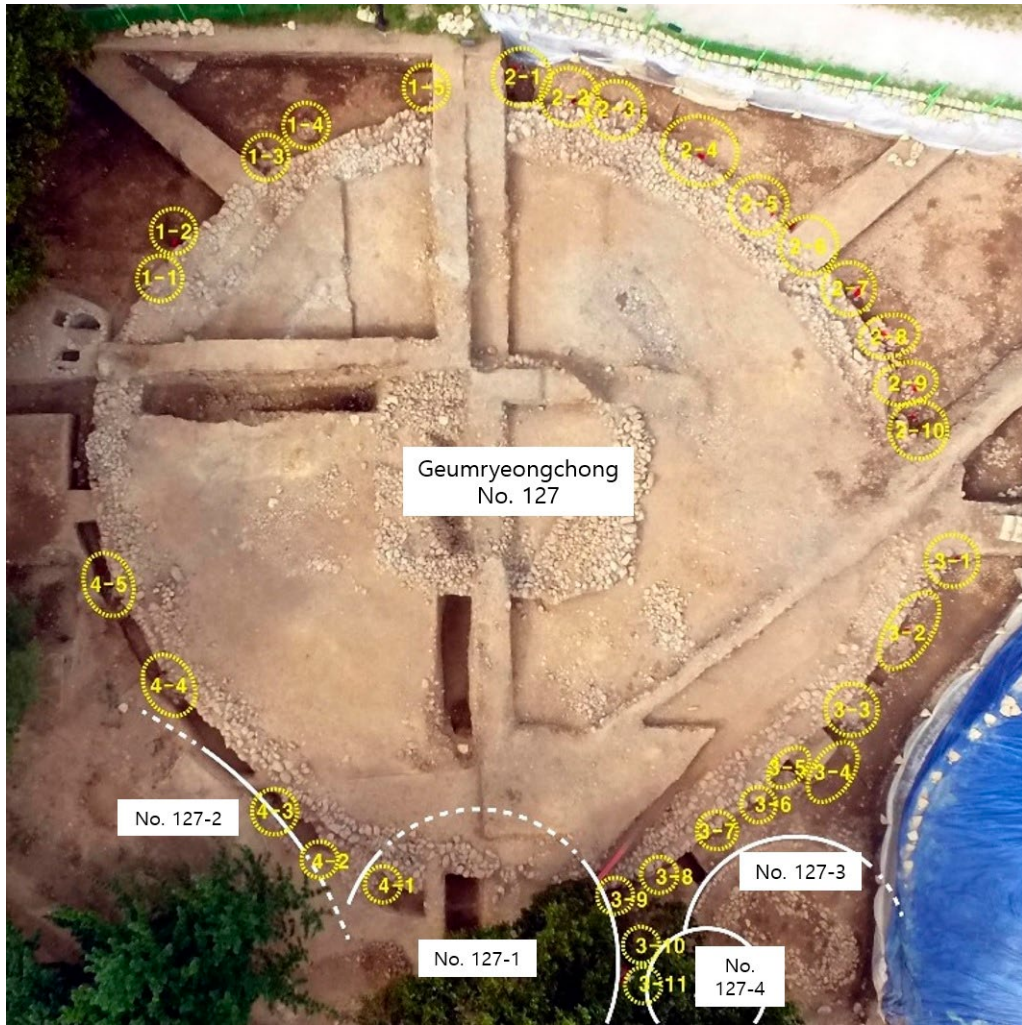


Fig. 6. Arrangement of ritual pottery vessels around Geumryeongchong.

매납되는 경우는 동물을 물적 대상화하여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의 식재료처럼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물희생 가운데 말, 개 등의 동물 제물의 목숨을 앗아 그대로 묻는 경우는 인간을 대신하여 생명을 가진 존재를 죽임으로써 속죄하거나 무언가를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생명을 가졌던 존재라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전자는 해체되어 용기류에 담기고, 후자는 최소한의 해체를 거쳐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한 채 묻히게 된다.

고찰

의례는 일견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에 의해 행해진다. 동물희생의례에 어떤 동물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그 사회가 가진 상징체계의 성립 이전에 특정 동물의 가축화 또는 특정 사육종 동물의 도입과 같은 경제적인 토대가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조선 시대에는 사슴이 ‘신령스러운 풀을 먹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의례의 희생물로 선택되었으나, 현재 그러한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사슴이 신령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희생 동물에 부여되는 의미가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에 의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희생의례 연구는 그 경제적 배경과 사회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로 확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산 임당 유적과 경주지역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경주 일대의 왕릉들은 일제강점기에 다수가 도굴·파괴되었고,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그 피해 정도가 일부 파악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경주지역에서 일부 왕릉에 대한 재발굴을 진행하면서 경주지역의 왕릉 축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식 발굴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 성립 초기부터 줄곧 신라의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경주에서는 경산과 같은 지방 중심지의 분묘유적들과 비교할 때 동물희생의례의 규모가 훨씬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남대총, 미추왕릉 등 경주의 왕릉급 분묘에서 봉분 내부나 분묘 주변에서 동물희생의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재조사된 서봉총과 금령총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경주의 미추왕릉 C 지구에서는 1호 고분의 호석에 접한 대형 토기 안에서 조류와 패류가 뒤섞인 채 발견되었고, 서봉총과 금령총에서는 무덤 주변을 따라 패류나 어류가 가득 찬 커다란 토기가 다수 배치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Fig. 6 [13]). 이때 어류의 경우 아주 어린 치어부터 큰 성어가 혼재되어 있다던지, 패류의 경우도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혼재된 양상이며, 식용하지 않는 패류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또 많은 경우 패류가 식용되지 않은 상태, 즉 조개류가 입을 닫은 채 출토된다든지, 고등류는 뚜껑이 닫힌 채 출토되고 있어 가열 조리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특징적인 양상이다. 이는 경산 임당 유적에서 제수가 용기류에 담긴 채 매납된 경우와 성격상 유사하지만 그 양적인 측면에서 경주가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희생 동물을 그대로 매납하는 독립매장유구의 경우도 경주와 임당 유적에서 질적 차이를 보이는데, 경산 임당 유적에서의 말 독립매장유구에는 생후 18년 이상의 노쇠한 말이 매납된 반면, 경주 황오동 100유적의 경우는 생후 5~7년간의 상당히 어린 나이의 말이 희생되었다. 이때 황오동 100유적의 독립매장유구에서 출토된 말들은 금동제 마구를 머리 부위에 착장한 채 매납되어 있었다[14]. 노쇠한 말을 희생한 임당 유적의 경우와 달리 경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린 말을 희생할 수 있다는 점, 또 이때 화려한 금동제 마구까지도 함께 매납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중앙과 지방의 동물희생의례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왕릉에서의 동물희생의례는 지방의 다른 분묘군에서의 양상과 비교할 때 유사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양과 질에 있어서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중심지와 지방

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 때문인지, 중앙 왕족 및 귀족과 지방 지배층이 행했던 동물희생의례의 성격 자체가 달랐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주 일대의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는 말의 독립매장유구가 경주 밖에서는 현재까지 경산 임당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등 두 지역의 집단들은 그 관계가 밀접했을 뿐 아니라 동물희생의례상에서 많은 요소를 공유했던 것을 고려할 때 양자간의 양적·질적 차이는 중심과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된다.

의례는 표면적으로 내세워지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회·정치적인 배경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동력이 되어 행해진다. 많은 경우 공동체가 행하는 의례에서 일차적 중요성은 그 공동체 자체로, 사실상 의례의 실제 목적과 의미는 그 의례에 참석한 이들이 믿는 것과는 달랐다. 가령 원초적 희생의례와 전체 부족이 참여하는 공동 식사는 그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최우선의 수단이었으나, 그 의례의 참여자들은 그 의례의 주된 목적을 결코 인식하지 못했다[15]. 이처럼 의례 행위는 공동체의 단합이나 지배자의 권력 공고화, 다른 공동체와의 동맹과 같은 사회·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행해져 왔다. 신라 지배층의 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희생의례는 각 축조 집단이 가진 경제적 능력 외에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지역의 왕릉과 경산 임당 유적에서 행해진 동물희생의례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규범 내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아직까지는 경주지역에서의 분묘 내부의 동물부장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과거 보고서에 언급된 유물 출토 양상을 고려하면 임당 유적과 유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덤 내부에는 주곽과 부곽에 토기를 가득 채웠고, 그 안에는 다량의 새와 물고기를 담은 토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곽과 부곽을 닫는 과정, 봉토를 쌓는 과정, 무덤 축조가 완성된 시점에 각각 다른 성격의 의례가 행해졌고, 각 위치에서 동물희생이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식용하는 조류, 어류, 패류 등이 토기에 담긴 채 매납되었고, 신분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사육종 포유류 동물-신라사회에서는 주로 말-은 망자 혹은 축조집단을 대신하여 희생되어 무덤 주변에 묻혔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은 그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지방의 지배 세력이었던 경산 지배층들은 노쇠한 말을 희생하여 묻었지만, 경주의 왕족과 귀족들은 젊은 말에 금동제 마구를 씌운 채 그대로 묻는 등 의례에 투입된 비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과거 의례 연구에 있어서 동물고고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적 접근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동물부장 양상이나, 희생 동물에 부여된 의미, 동물희생이 이루어진 지점이 가진 의미 등 보다 구체적인 양상들을 밝혀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당시 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 이것이 의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사회의 일면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Lee JJ. Domesticated pig in Korea: its socioeconomic and symbolic context. *J. Korean Archaeol.* 2011;79:131-74. Korean.
2. Ko EB, Lee JJ, Kim DW. Animal Remains from Kyoungsan Imdang Site I. Kyoungsan: Yeungnam University Museum; 2017.
3. Kim EY, Ko EB, Lee HK, Lee JJ, Kim DW. Animal Remains from Kyoungsan Imdang Site II. Kyoungsan: Yeungnam University Museum; 2018.
4. Kim JW, Kim WR. Excavation of three Silla Tombs: The Ssang-sang Ch'ong, Ma Ch'ong and Tombs No.138. Seoul: Eul-Yu Publishing Company; 1955. p. 21-6. Korean.
5. Ko EB. Seventy Feetless Birds. In: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editor. *Gojoseon in Archaeology*. Seoul: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17. p. 186-96. Korean.
6. Kwon OY. New perspectives in burial studies. In: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editor. *New Perspectives in Burial Studies*. Seoul: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008. p. 5-14. Korean.
7. Lee HJ.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illa High-mound Tomb. *Yeongnam Archaeol. Review.* 1997;20:1-25. Korean.
8. Ko EB. Birds for the Dead: Animal Offerings from High-mound Tombs at Imdang. *J. Korean Archaeol.* 2018;106:4-41. Korean.
9. Lee SJ. Food Serving and Storage Ritual in Wooden Chamber Burials. *Yeongnam Archaeol.* 2014;70:106-41. Korean.
10. Serjeantson D. *Birds*.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340-8.
11. Jeong YH, Kim YS, Kim DH, Son JM. Kyoungsan Imdang Site VI. Kyoungsan: Yeungnam University Museum; 2002. Korean.
12.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Kyoungsan Imdang-dong Site III. Chilgok: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01. p. 442-3. Korean.
13. Gyeongju National Museum. Geumryeongchong. Press release. 2019. Korean.
14. Jeon BJ, Kim DC, Lee DH, Kang JM, Kim SW, Ko SH, Lee HJ. Gyeongju Hwangoh-dong 100 Site I. Gyeongju: Dongguk University Museum; 2008. p. 111-7. Korean.
15. Bell C.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Translated by Ryu SM. Hanshin University; 2013. p. 40-8. Korean.

간추림 : 본 논문은 삼국시대 신라권역에 축조된 거대한 무덤인 고총고분에서 출토되는 동물유존체를 동물희생의례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라시대 지배층의 무덤에서 어떻게 동물희생의례가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송의례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의례 행위의 연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행해진 동물희생의례 역시 단계별로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 의례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동물부장과 동물희생으로 구분하였다. 동물부장은 분묘 내부, 즉 주곽과 부곽 내부에 부장품으로 매납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는 조류, 어류, 패류, 포유류 등이 토기 등의 용기에 담겨 부장된다. 이처럼 동물부장의 맥락에서 출토되는 동물유존체는 음식으로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음식이나 식재료만 부장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희생은 死者와 일체의 부장품을 넣은 공간을 닫은 이후에 이루어진 의례행위로, 분묘 외부, 즉 개석 위나 봉토 또는 분묘 주변에서 확인된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용기류에 담겨 매납된 공물로, 이는 분묘 축조 과정이나 이후 제사 과정에서 행해진 의례에서 이용된 祭需 음식을 매납한 경우다. 이는 분묘 내부에 매납되는 부장품과는 구분되며, 음식물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은 희생된 제물이 매납된 경우로,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앗는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동물들은 분묘 축조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제사 과정에서 행해진 의례에서 희생되어 개석 위, 호석 주변, 인접한 독립매장유구 등 분묘 외부에 매납되는데 용기류에 담기지 않고 살아있을 때의 형태를 유지한 채 출토된다. 많이 알려진 말무덤이나 마갱이 이에 해당한다.

찾아보기 낱말 : 동물희생의례, 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 고고학